

HVDC케이블 등 10개 전문워크숍 '성황'

2018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첫날인 11일에는 10개 전문워크숍과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사업 합동 워크숍이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경제경영연구원과 전력연구원, 신송전사업처 등이 5개 주제의 전문워크숍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경상대 등 6개 대학, LS산전, 전기학회 산업전기위원회, 매스웍스코리아 등이 주제별 워크숍을 진행했다.

먼저 한전은 ▲HVDC케이블 ▲실시간 계통해석 기술 ▲신재생에너지 출력예측기술 ▲2018 EV 충전인프라기술 ▲4차 산업혁명과 전력산업의 변화 및 미래 발전방향 전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물에너지 활성화'를, LS산전은 'IoT 기반의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현황'을, 매스웍스코리아는

'MATLAB 기반 로보틱스 및 자율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을 주제로 각각 전문 워크숍을 진행했다.

아울러 경상대·광운대·연세대·서울과학기술대·고려대·부산대가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사업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전기학회 산업전기위원회는 '산업전기위원회 전문 워크숍 및 논문 발표회'를 이어갔다.

강원도 평창=김병일 기자 kube@

HVDC 케이블 전문 워크숍

800km 한중일 연계 슈퍼그리드 사업 정보 '눈길'

한국전력공사가 남북관계 해빙무드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관련 계획을 공개했다. 한-중, 한-일 등 약 800km에 이르는 연계 선로와 전압, 구성방안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겼다. 한전 신송전사업처와 전력연구원은 11일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부대행사로 'HVDC지중송전기술 전문 워크숍(사진)'을 개최하고, 국내외 HVDC 사업 현황과 기술 트렌드를 조망했다.

먼저 한전 신송전사업처는 '국내 HVDC 케이블 사업현황 및 계획' 발표를 통해 계획 중인 선로와 건설 중인 사업의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돼 참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발표를 진행한 김성원 한전 신송전사업처 차장은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동북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공동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몽골에서 생산한 전력을 중국, 한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며 "한-중 연계 사업은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까지 366km에 이르는 선로로, 기초 서베이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며, 조만간 기초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에서 일본 마쓰에로 이어지는 한-일 연계는 상대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계전압과 용량은 HVDC ±500kV, 2GW로, 시스템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8개 연계방향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국내외 HVDC 케이블 기술

개발 동향' 발표를 통해 국내 LS전선을 비롯한 프리즈미안, 넥상스, NKT, 스미토모 등 시장 리더들이 보유하고 있는 HVDC 기술과 글로벌 프로젝트 정보 등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정재균 연구원은 "HVDC 시스템에 최초로 적용된 MIND 케이블을 개발 이후 PPLP, OF, XLPE 등 다양한 절연재를 활용한 제품이 개발돼 왔다"며 "최근 들어서는 전압형 640kV XLPE 케이블이 2014년 ABB, 2016년 프리즈미안, 지난해 NKT 등을 통해 개발됐으며, 700kV MI-PPL 케이블(프리즈미안) 등 새로운 HVDC 케이블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사업 합동 워크숍

MG전력계통시스템 등 대학별 고급트랙 공개

이번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참여 대학들의 성과와 계획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대, 광운대, 연세대, 서울과학기술대, 고려대, 부산대는 11일 '에너지 고급인력 양성사업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급트랙의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전기학회장을 맡았던 박준호 부산대 교수는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계통운영시스템 고급 트랙'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

로 독립형과 계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ABB, GE, 지멘스 등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용 제어시스템이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때문에 부산대는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계통시스템 운영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할 것"이라며 "이들 전문인력은 마이크로그리드 관련 EMS와 전력계통 운영, 분산전원, 전력변환장치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전력산업 전문워크숍

미래 전력계통 전망 등 전기계 현안 공유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은 이날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전력산업 전문 워크숍'을 열고,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방안, 미래 전력계통 전망 등 전기계 주요 현안들을 공유했다.

김현진 한국전력 계통계획처 차장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와 미래 전력계통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영·호남, 강원 지역 농어촌에 집중돼 있다. 재생에너지 전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확정계획과 잠정계획으로 구분해 계통보강에 나서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배전선로는 확정계획 77기, 잠정계획 798기를 각각 보강할 계획이다. 변압기와 변전소의 확정계획 물량은 각각 65기와 11기, 잠정계획은 62기와 64기"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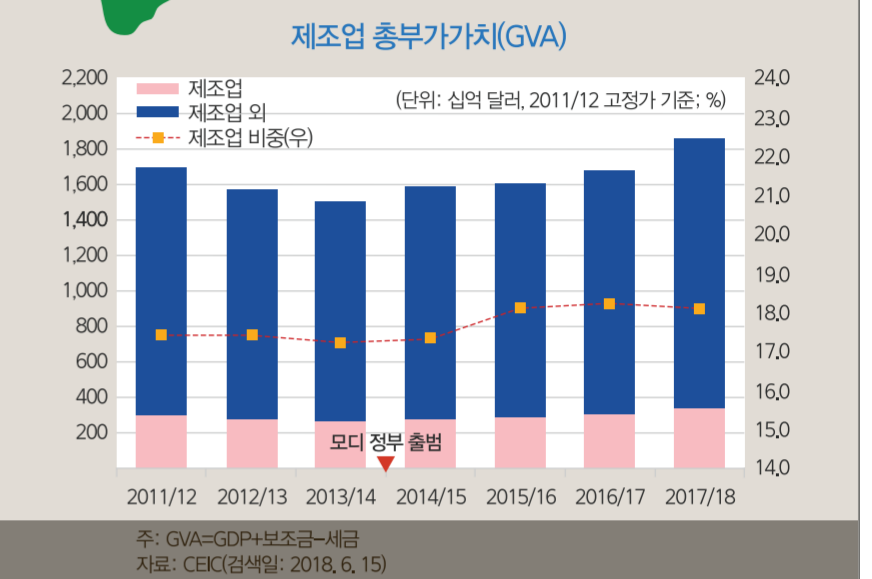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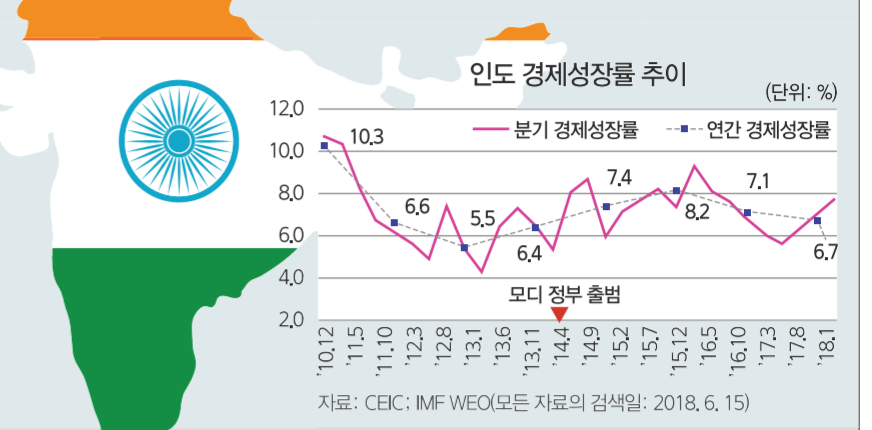
ESS 활용 범압기 접속용량 증대, 지역 재생에너지 감시운영예측시스템 도입 등의 수용성 확대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강원도 평창=조성훈 기자 joh@

이 NEWS

신남방시대, 인도 모디노믹스를 공략하라

인도는 2014년 모디(Narendra Modi)정부 출범 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7%대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대국으로 부상함.



한·인도 경제협력과제

'3P플러스'를 핵심 협력 프레임워크로 활용, 대인도 신남방협력 정책과 프로젝트를 개발해나가기 함.



그라픽:서요명 기자

품질 최고 가격경쟁력 1등

(전국 최저가)

일체형 PANEL

ACB 반

조달청, 포스코, 포스코 건설
한국전력, 중부발전 등에
등록된 협력업체입니다.
품질 1등, 가격 1등으로
귀사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분전반부

Model	규격 (mm)
No.3 Model : 5060-2	W500 × H600 × D150
No.7 Model : 5060-6	W500 × H600 × D150
No.8 Model : 6070-1	W600 × H700 × D150
No.9 Model : 6070-2	W600 × H700 × D150

기성함부

JB(콘트롤박스) 1.0T	JSI(메이함) 1.6T	JDS 1.6T(분전함)	1.2T
----------------	---------------	---------------	------

주요생산품목
수배전반 전문생산 / 일체형 특별고압 수전설비 / MCC반 / 각종 기성함

주주연텍
JOOYEONtech Co., Ltd.

경기도 시흥시 엔티비이북로 183 2사 704호
T. 031-434- 5521~2 F. 031-434-5525
E-mail : jyt5050@hanmail.net

견적으로 확인하세요